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쾨베르크는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조성 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예컨대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2도나 단2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그 화음은 불협화음으로 취급된다.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딸림화음과 ‘솔-시-레’의 딸림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조성 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쾨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가 ㉡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의 12개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렬’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조성 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3도·단3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12음 기법의 음렬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쾨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 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쾨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는데,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력은 강화된다. 이처럼 쾨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 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

(나)

레보비츠는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 규명했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체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 불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는 쾨베르크가 조성 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 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하였다.

조성 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쾨베르크가 주장한 ㉤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현상학은 모든 전체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쾨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 제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결국 쾨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쾨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음색과 강세 등 개별 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 간과했다.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잔여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잔여,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쾨베르크의 음악은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 평균율: 옥타브를 등분하여, 그 단위를 음정 구성의 기초로 삼는 음률 체계. 주로 12평균율을 가리키는데, 단위의 하나를 반음, 2개를 온음으로 함.

4. (가)의 ‘쾨베르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하여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곡 안에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음 사이의 관계가 규칙적인 음계 대신 비규칙적인 음렬을 사용하여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 ④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 체계의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음악적 무질서를 추구하였다.
- ⑤ 화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부정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5. (나)의 [현상학적 잔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이다.
- ②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이다.
- ③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 ④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의식에 남아 있는 순수 현상이다.
- ⑤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포착되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이다.

6.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으뜸음이 주관하는 음악적 질서이고, ㉡은 음의 배열을 지배하는 거시적 구조이다.
- ② ㉠은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작곡 기법이고, ㉡은 전통과 단절되어 새롭게 제안된 작곡 기법이다.
- ③ ㉠은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이고, ㉡은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 ④ ㉠은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이고, ㉡은 작곡가의 음악적 자유를 구속하는 제약이다.
- ⑤ ㉠은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이고, ㉡은 곡의 체계를 와해하여 무질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7. (가)의 글쓴이가 (나)의 ㉢에 대해 반박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물감 사용법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 ②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배열 방식이 다른 음이라는 점에서, 이미 동일한 물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③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 ④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으로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⑤ 장조와 단조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에서 새로운 물감 사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8. (가)의 ‘원베르크’의 관점(A), (나)의 글쓴이의 관점(B)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전자 음악은 공기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 달리, 전기적 신호를 합성하여 무한한 음향을 창조한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 음악은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음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바레즈는 <하이퍼리듬>에서 11마디 동안 ‘높은 도’를 반복하면서 강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 낸다. 슈톡하우젠은 <십자놀이>에서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하여,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각각의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선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 ① A: 음높이는 유지한 채 강약과 음색만을 변주하는 <하이퍼리듬>에서는, 동일한 음높이의 공유와 반복을 통해 곡의 유기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겠군.
- ② A: 개별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십자놀이>의 작곡 기법은,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겠군.
- ③ B: 전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전자 음악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음악의 문화적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B: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십자놀이>의 작곡 방식은,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여 순수한 음향 현상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여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B: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 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흠어지고
- ② ㉣: 비웃되는
- ③ ㉣: 밝혀냈다
- ④ ㉣: 내놓았기
- ⑤ ㉣: 지나쳤다

(가), (나)형 지문의 의도된 문항 배치 활용

1. (가)의 내용 정리를 위한 단독 문항

> 3월 학평에서 4번 문항은 쇠베르크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4번 문항의 선지들의 틀린 부분을 판단하며 쇠베르크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용이 반증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6번, 7번 그리고 8번을 푸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2. (나)의 내용 정리를 위한 단독 문항

> 3월 학평에서 5번 문항은 '현상학적 잔여'가 포함된 문장을 통해 후설의 현상학 개념이 글쓰기가 펼쳐는 논증의 주요 근거임을 알려준다. 5번을 통해 후설의 현상학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선지들을 판단하며 반증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용이 6번, 7번 그리고 8번을 푸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3. (가), (나)의 핵심에 대한 종합적 이해

> 3월 학평에서 6번 문항은 4번, 5번 문항의 정리를 통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핵심 문항이었다.

4. (가), (나)의 쌍방향 연결(능동적 구성)

> 3월 학평에서 7번 문항은 (나)에서 (가)로 향하는 반증을 역으로 (가)에서 (나)로 향하도록 재구성하여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쌍방향의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이 문항 역시 앞의 4, 5, 6번 문항을 활용하여 더 쉽게 풀 수 있다.

5. (가), (나) 관점에서 적용해볼만한 사례

> 3월 학평에서 8번 문항은 (가)와 (나)의 관점에서 특정 사례를 이해하는 문항이었다. 앞에 제시된 4, 5, 6, 7번 문항에서의 이해를 종합하면 쉽게 풀 수 있도록 출제된다.

특정한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반증하는 독서 지문

A의 주장을 소개하고, B가 특정한 전제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A의 주장을 반증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그럼 반증하는(제시된 반증을 이해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1. A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반드시 A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는 단독 문항이 출제되기에 이를 활용하면 더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B가 제시하는 전제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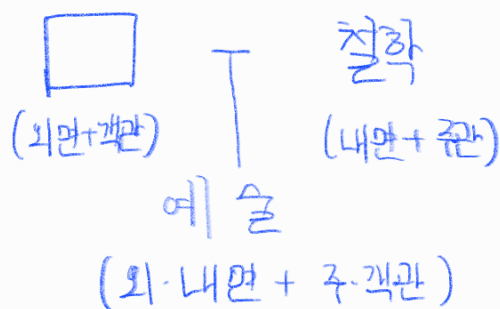
> 전제란 B가 A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3월 학평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쉰베르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후 수록된 기출들에서 '미메시스의 재현', '변증법에서 종합 단계의 탁월성', '자유 의지의 두 가지 조건' 등이 그러한 전제이다.

3. B가 반증을 시작하면, 먼저 A의 주장을 꺾는다. 예를 들어, 헤겔의 "변증법에 따르면 절대정신은 예술 - 종교 - 철학 순으로 발전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절대정신의 변증법은 그러한 순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주장을 꺾는 것이다.

3. B가 제시한 전제에 따라 능동적으로 A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예를 들어, 헤겔의 변증법은 "종합 단계에서 내면성과 주관성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며, 외면성과 객관성이 소멸하는 중화가 일어나는 게 문제이다."라고 전제에 따라 반박하는 것이다.

(선택-항상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4. 반박에 의거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따라서 외면성과 객관성이 내면성과 주관성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제대로 된 종합 단계의 절대정신이 필요하다. (지문에 의하면) 그것이 예술이다." 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반증을 마무리할 수 있다.



[2023학년도 9월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
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
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
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
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
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①전락시키
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
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
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
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
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
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
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
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
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
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
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
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
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
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
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
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
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
질과 ②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
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징의 사과

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③응시하는 예술
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
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
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④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
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
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⑤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⑥박탈한다. 실
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
운 예술 정신을 ⑦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
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
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 명함. ㉡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 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 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 정을 제시함. ㉢	(나)는 (가)와 달리 논 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 른 이의 견해를 인용 함. ㉣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4.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5.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 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② A :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A :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 :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⑤ B :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맞바꾸는
- ② ㉡ : 동떨어진
- ③ ㉢ : 바라보는
- ④ ㉣ : 빼앗는다
- ⑤ ㉤ : 찾아내는

[2022학년도 수능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8.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9.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10.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11.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12.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2022학년도 9월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4.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와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답				
3월 학평 4번	3월 학평 5번	3월 학평 6번	3월 학평 7번	3월 학평 8번
②	③	③	②	⑤
3월 학평 9번	1번	2번	3번	4번
①	③	①	⑤	⑤
5번	6번	7번	8번	9번
③	①	①	③	④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③	②	③	⑤	④
15번	16번			
⑤	④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다.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 법인이 된다.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 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상장 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 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공시 의무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발생한다. 발행 시장에서 상장 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반면 상장 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상장 법인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 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유통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따라서 상장 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상장 법인은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 정기 공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시를 공정 공시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 이른다.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이다.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1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장 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유통 시장에서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되는 증권은 가격이 변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 ③ 공시 제도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도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상장 법인은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없다.
- ⑤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법인은 공시 의무를 갖는다.

11.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상장 법인이 추가로 발행해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은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즉시 그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장 법인이 불완전한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과 ㉡에서는 모두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⑤ ㉠과 ㉢에는 모두 증권의 최초 발행 가격과 수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배터리 제조사 갑은 2022년 7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 이사 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갑은 2024년 6월,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후 A는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B는 자산 관리자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 ① 갑이 증권 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갑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였군.
- ② A가 202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 매매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③ 영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겠군.
- ④ B가 C에게 갑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 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B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군.
- ⑤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C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되겠군.

13.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올해는 예년에 비해 꽃피는 시기가 이르다.
- ② 친구는 매번 선생님께 나의 잘못을 이른다.
- ③ 평화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른다.
- ④ 그가 아이에게 다시는 늦지 말라고 일렀다.
- ⑤ 그가 기자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일렀다.

예시형 <보기>의 적극적인 활용

예시형 <보기>는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문제를 잘만 활용해도 고난도 3점을 딸까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세트의 문제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내용 일치 문항은 문단마다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3월 학평에서 10번 문항은 여러 문단에 흩어져있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준 문항이나 마찬가지이다. 1문단에서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2문단, 3문단 등 매 문단마다 이를 반복하여 지문 전반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는 방향으로 선지를 활용한다.

2.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문항은 요구사항 맞춰 문항을 활용한다.

> 3월 학평에서 11번 문항은 ㄱ, ㄴ, ㄷ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3. 예시형 <보기>는 지문에다가 예시를 그대로 대입해서 읽는다.

> 3월 학평에서 12번 문항의 <보기>는 지문의 내용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면 그대로 대입하여 지문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를 간단하게 표현했다. 영상 강의에서 이를 확인하자.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행 시장에
 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상장
 법인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 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
 법인이 된다.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시
 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 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이다. 상장 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
 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
 재한 상장 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갑은 제재 대상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
 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용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배터리 제조사 갑은 2022년 7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
 장하면서 대표 이사 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 신고
서를 제출하였다. 갑은 2024년 6월,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
 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후 A는 계
 획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 이
 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B는 자산 관리자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자
 신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

- ① 갑이 증권 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
 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갑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였군. ○
- ② A가 202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
 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 매매는 미
 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겠군. ○
- ③ 영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이를 신속하
 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겠군. ○
- ④ B가 C에게 갑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
 은 상장 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B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군. ○
- ⑤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C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되겠군. X
=> C가 1차 정보수령자

[2023학년도 수능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질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 ②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인 경우보다 기속 행위인 경우가 많다.
- ⑤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된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 ②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 ③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 ④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 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 (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나)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단, 위의 모든 상황에서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②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 이것이 네가 찾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라.
 ② ㉡ : 그 부부는 노후 대책으로 적금을 들고 안심했다.
 ③ ㉢ :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④ ㉣ : 형은 땀 흘려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굴랐다.
 ⑤ ㉤ :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23학년도 9월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2020학년도 9월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10.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11.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3.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나으로써 발전한다.

정답				
3월 학평 10번	3월 학평 11번	3월 학평 12번	3월 학평 13번	1번
⑤	④	⑤	③	④
2번	3번	4번	5번	6번
⑤	②	⑤	②	④
7번	8번	9번	10번	11번
②	④	⑤	⑤	②
12번	13번			
③	①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으로, 심장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심장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며 말초 혈관 저항은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이다. 이때 심장박출량은 일회당 심장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일회당 심장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 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RAAS)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I 이 형성되도록 한다. 안지오텐신 I 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안지오텐신 II 가 되며, 안지오텐신 II 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수분 재흡수도 증가한다.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II 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여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에 의한 [신경 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이 분비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 카테콜아민은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반면 혈압이 상승하면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이 하강한다.

교감 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카테콜아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또한 안지오텐신 II 는 카테콜아민 분비를 촉진한다.

1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 혈압의 상승 폭이 더 크다.
- ② 안지오텐신 II 가 증가하면 세뇨관 주위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 양이 감소한다.
- ③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 ④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안지오텐신 I 의 형성이 증가한다.
- ⑤ 안지오텐신 II 는 교감 신경계 말단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의 모세 혈관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 ②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사구체에서 세뇨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감소할수록 혈압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카테콜아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사구체 여과액이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⑤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증가할 때 나트륨 재흡수도 증가하여 체내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16. [신경 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한다.
- ②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심장박출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하강시킨다.
- ③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기관에 작용하려면 그 기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야 한다.
- ④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 ⑤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는 혈압 변화에 대한 신호를 뇌로 보낸다.

1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어 고혈압이 발병할 수 있다. 이는 말초 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말초 혈관 재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압력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초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에는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등이 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칼슘 차단제는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 ①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말초 혈관 재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군.
- ②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 심장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겠군.
- ③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겠군.
- ④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Ⅱ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칼슘 차단제는 근육에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겠군.
- ⑤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Ⅰ의 양을 감소시키겠군.

과정 속 문제해결 지문의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문제 인식

>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3월 학평에서 문제는 17번의 <보기>에 제시된 고혈압이다.

2. 원인 분석

> 문제를 발생시킨 일련의 원인들을 역순으로 분석한다. 3월 학평의 17번 문제에서 고혈압의 원인은 '나트륨의 체내 축적' < 'RAAS의 과도한 활성화'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RAAS가 왜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는가'를 이해하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원인 제거

>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3월 학평의 17번 문제에서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RAAS의 과도한 활성화에 관여하는 카테콜아민과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치료제일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RAAS의 과도한 활성화를 막는지에 유의하여 지문을 읽고 문제에 적용한다.

(선택, 보완의 새로운 근거를 글쓴이가 제시해줄 때만 출제됨.)

4. 보완책 강구

> 지문에 제시된 근거 이외의 새로운 보완책의 근거가 문제에 제시되면 이를 활용하여 원인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그 예로는, 2018학년도 9월에 출제된 'DNS 스푸핑' 지문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보기>의 'host' 파일 활용법이 있다.

[2023학년도 6월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리노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_1 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_2 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_1 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_1 과 K_2 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_1 은 간세포에서, K_2 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_1 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_2 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_1 과 K_2 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_2 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

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2.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_1 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2016학년도 9월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맵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 ② ㉠은 ㉢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 ③ ㉡과 ㉢은 모두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한다.
- ④ ㉢은 ㉡과 달리 한 가지 종류의 암에만 효능을 보인다.
- ⑤ ㉢은 ㉡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작용한다.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의 액체에 넣었다.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1~2 mm의 작은 암 덩이로 자란 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 ① ㉠에서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겠군.
- ② ㉠과 함께 Bcr-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겠군.
- ③ ㉡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되었겠군.
- ④ ㉡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2020학년도 수능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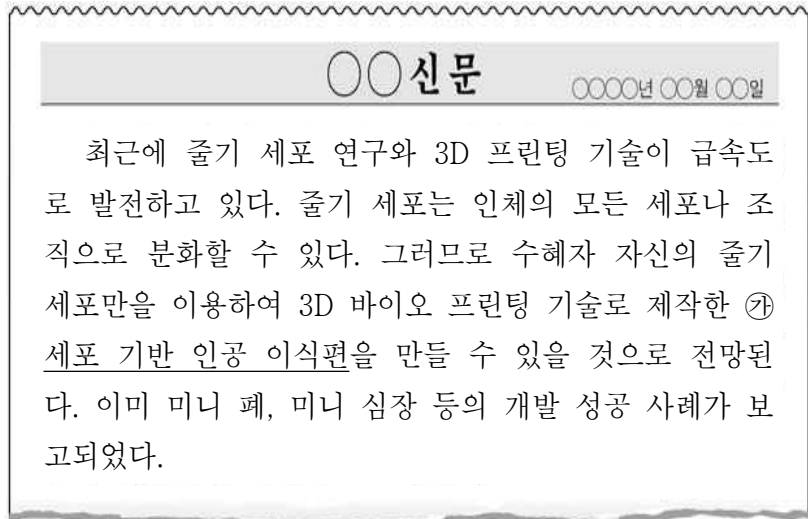
7.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8.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정답				
3월 학평 14번	3월 학평 15번	3월 학평 16번	3월 학평 17번	1번
②	①	①	⑤	①
2번	3번	4번	5번	6번
②	④	③	⑤	②
7번	8번	9번	10번	
⑤	①	③	①	